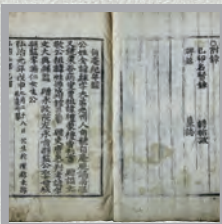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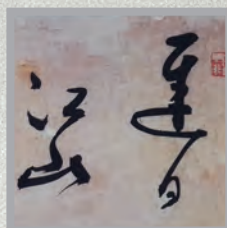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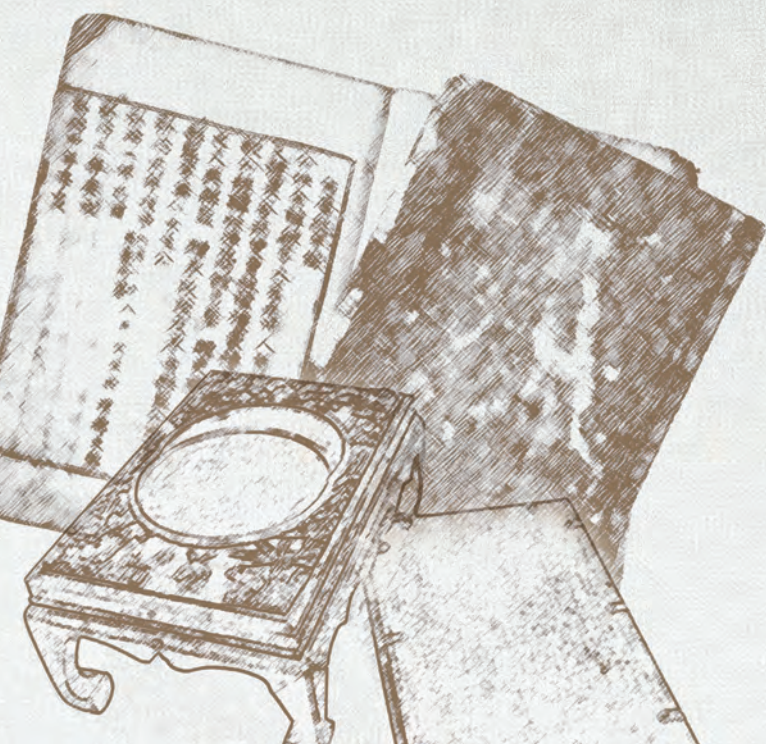


自菴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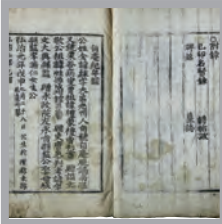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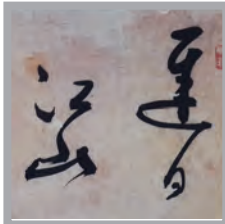


조선 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絺)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自菴金絺



조선 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絺)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조선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絿)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 주최 · 주관 |  예산문화원 자암기념사업회

| 후원 |  예산군  충청남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협찬 | 광산김씨 대흥공파, 예산군 체육회, (주)무한정보, (주)한국유통, 신암주유소, 신원건설,
그린지물, 신한벽지

인쇄_ 2013년 12월 11일 발행일_ 2013년 12월 11일

발행인_ 김시운 기획_ 박세진 전시_ 서흥석(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행정지원_ 김상희, 윤선은

발행처_ 예산문화원 주소_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예산문화원)

Tel_ 041)335-2441, 333-2441 Fax_ 041)334-4330

디자인/인쇄_ 디자인톤 Tel_ 010-8524-0514

※ 본 책자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1,100여년 시간의 흐름속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예산, 그 속에서 예산의 얼을 더욱 돋보이게 하신 한분이 오늘 역사의 뒀안길에서 현신하듯이 우리 앞에 와 계신 듯 합니다.

예산의 또 한분의 서성으로 기묘사화로 인해 남해로 유배 가시면서도 곧은 선비정신을 보이시고 유배지에서 경기체가인 화전별곡으로 조선 문학의 백미를 장식하신 문학가이시기도 하며, 부모님 묘위전에서 효도를 행하지 못함에 항상 죄스러워하여 몸을 낮춘 효도의 귀감으로 충·효·예 모두를 실천하신 자암(自菴) 김구(金絿)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야 자암 김구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분의 행적을 정리하는 첫걸음을 때는 시금석이 놓여 진데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암 김구선생님의 곧은 성품으로 인하여 많은 유작이 많지는 않지만 자암 선생님의 발자취와 업적 서체를 연구하고 발굴하여 더욱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예산이 대한민국 서예예술의 본향임을 명백히 하고 자암에서 시작하여 추사에 이르기까지 서예예술을 통한 또 하나의 한류문화탄생에 충청남도 예산이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암김구 학술대회 및 유품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덕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년 1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기 · 념 · 사

예산출신으로 조선4대 명필로 일컬어지시는 자암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자암김구 선생님의 선양사업이 올해 예산문화원과 자암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그 뜻에 동감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 인사들 덕분에 전국서예대전과 더불어 학술발표회 및 유품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 최승우 예산군수님, 조병희 예산군회의장님, 우리지역 도의회 의원님들, 문화원의 최우선 업무로 사업을 추진해주신 김시운 문화원장님께 특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묵향의 계기를 열어 놓은 시조격인 자암 김구 선생님은 조선4대 명필이며 기묘명현 중 한분으로 추사 김정희선생님과 더불어 우리 지역 예산이 반드시 정립시켜놓아야 할 예산의 또 한분의 서성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산은 묵향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온 본향으로서 조선전기 자암 김구 선생님께서 시작된 서도의 맥이 조선후기 추사선생님에 이르러 그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 발표회가 그동안 묻혀져 있던 자암 김구선생님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충청남도 예산과 자암 김구가 대한민국의 서예예술의 본향으로서 묵향의 중심으로 정립되는 알찬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역사와 문화가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받은 우리지역 예산의 열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년 12월

자암기념사업회장 김 충 희

자암 김구선생 관련 유물



조선위원화초석산수매죽일월연 | 朝鮮渭原花草石山水梅竹日月硯

16세기 초 / 32.5cm × 20.7cm × 2.5cm

중종中宗이 자암선생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는 벼루로 연지硯池는 달을, 연당硯堂은 해를 표현한 일원연이다. 재질은 평안북도 위원군 압록강 수중에서 채집된 위원화초석渭原花草石이다. 벼루의 문양은 당시 사림의 취향이 새겨져 있다. 선비들의 절개를 표현한 매화와 대나무, 솔개에 쫓기는 두 마리의 기러기는 기묘사화에 연루된 긴장된 상황을 잘 표현 하였다. 산수운문은 대자연을 동경한 노장사상에 대한 염원을 말하였고, 오리는 자맥질하여 한 마리의 고기를 물고 있다. 두루미 한 쌍은 정답게 즐기고, 외로운 수달은 구경만할 뿐이다. 역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신선의 귀를 섬세한 선묘로 표현하고, 수달의 손질된 털의 표현기법은 매우 섬세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홀 | 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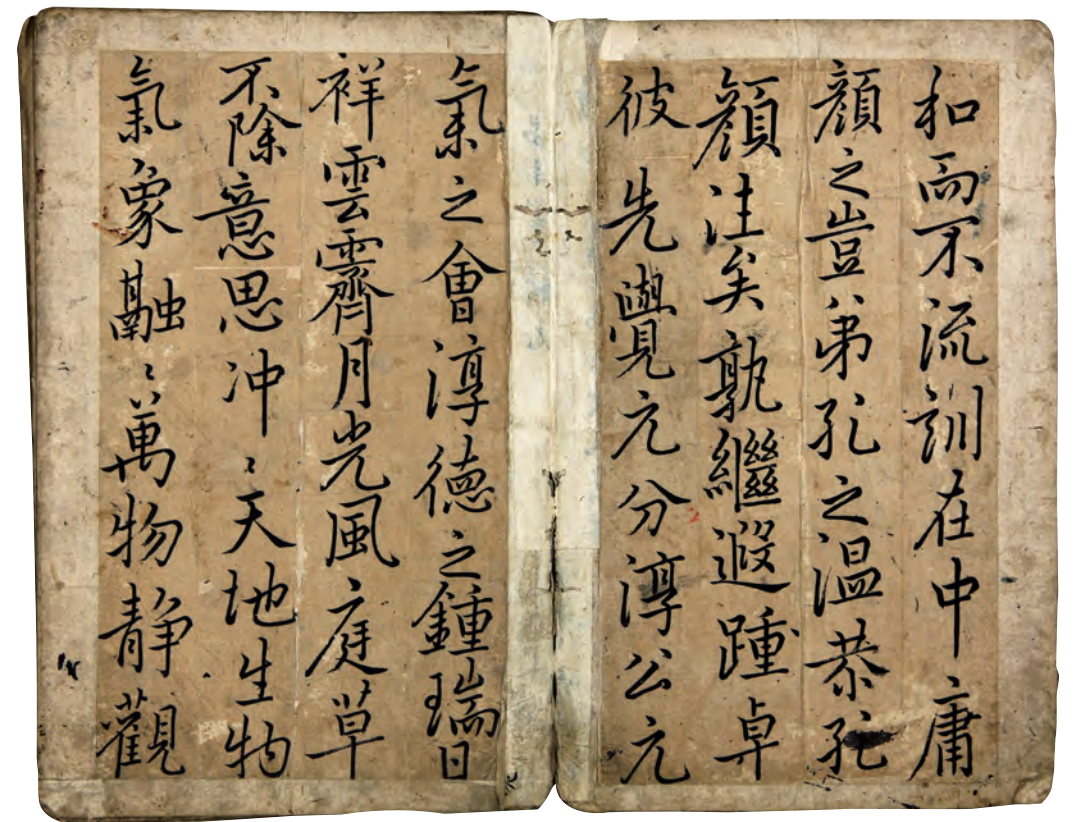
16세기 추정 / 2점 / 상아 45.2cm, 목재 4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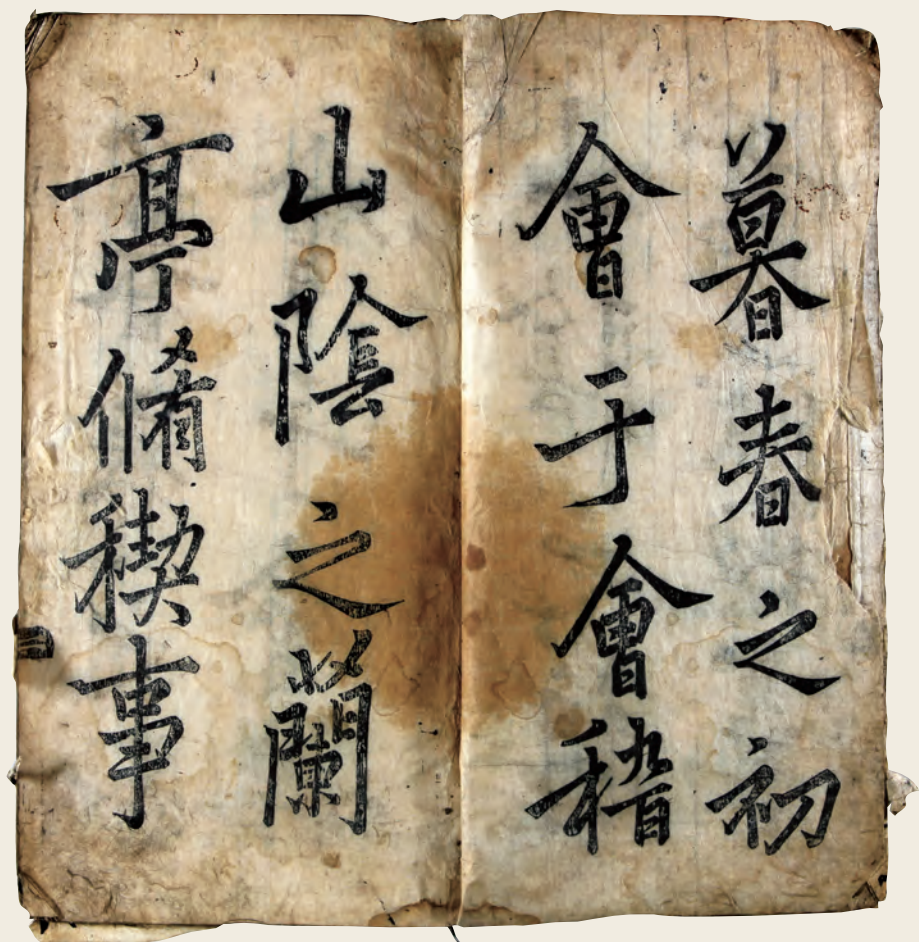
홀笏은 신하들이 왕을 뵈을 때 손에 쥐는 일종의 메모장이다. 원래는 왕의 가르침이나 임금에게 올리려는 글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단순한 의례용으로 제도화되었다. 1푼에서 4푼까지는 상아로 만든 홀을 들었고, 5푼에서 9푼까지는 나무로 만든 홀을 들었다. 홀은 유물의 양식이 시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홀 자체만으로 시대구분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자암 문중 종손의 전언에 의하면 이 홀은 자암선생이 직접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자암선생의 해서 진필로 화명과銘을 적은 것이다. 화명은 원元の 유학자 오초려吳草廬의 저작으로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에도 실려 있다. 화명의 본문인 “和而不流。訓在中庸。顏之豈。弟。孔之溫恭。孔顏往矣。孰繼遐蹤。卓彼先覺。元公淳公。元氣之會。淳德之鍾。瑞日祥雲。霽月光風。庭草不除。意思冲冲。天地生物。氣象融融。萬物靜觀。境與天通。四時佳興。樂。與人同。泯若圭角。春然心胷。如玉之潤。如酒之醲。睟面盎背。辭色雍容。待人接物。德。量含洪。和粹之氣。涵養之功。敢以此語。佩于厥躬”을 한 장에 쓴 것을 가위로 오려 전첩본으로 만들었다. 낙관은 다른 곳에서 오려 붙인 것으로 자암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암이 ‘蹤’ 자를 쓴 것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암서법 | 自菴書法

16세기 추정 / 1첩 / 필본 / 33cm × 21cm





자암서법 난정체 | 自菴書法 蘭亭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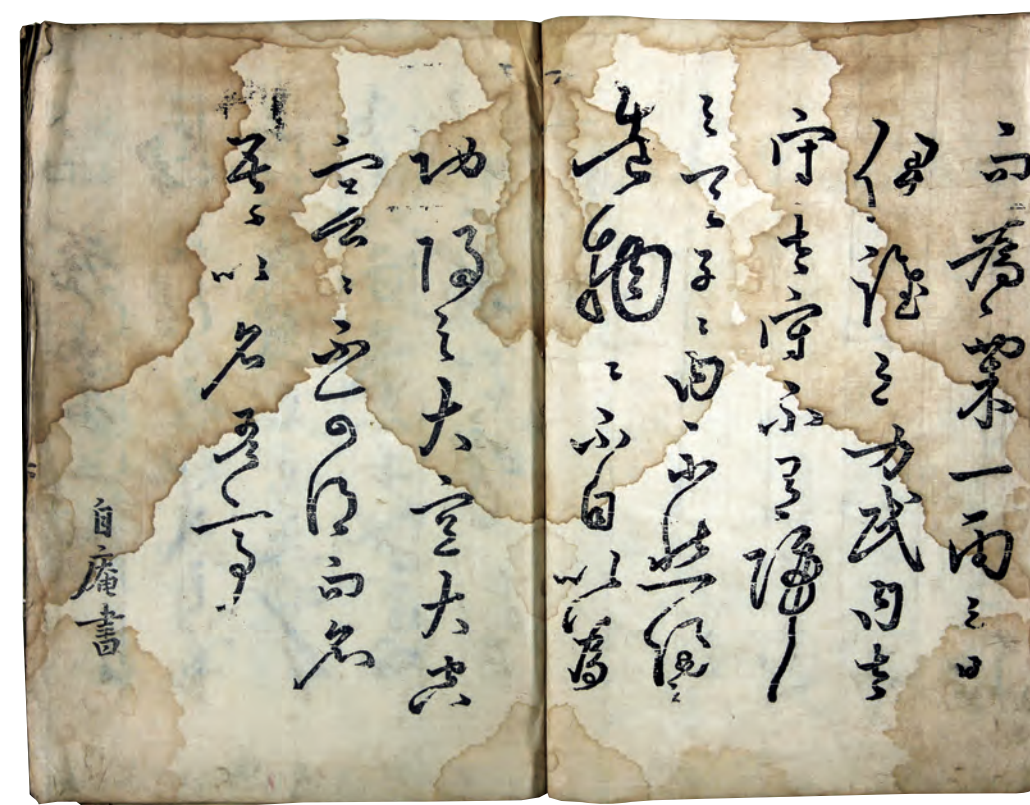
16세기 추정 / 1첩 / 목판본 / 51.7cm × 2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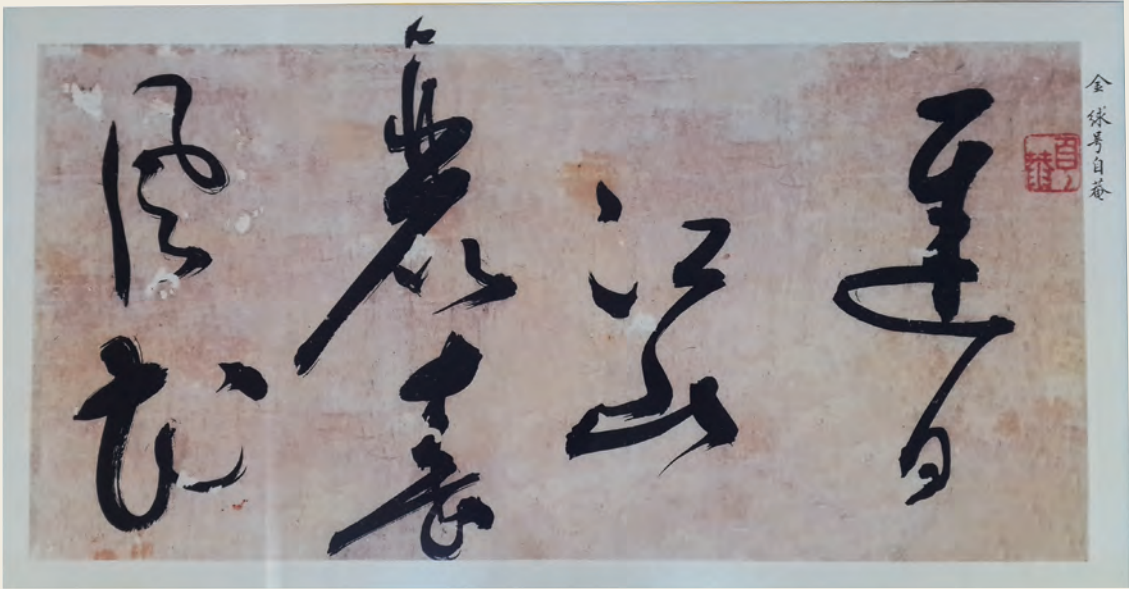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307~365)의 「난정집서蘭亭集序」를 자암선생이 임서臨書한 대자 글씨이다. 목판으로 만들어 인출한 것이다. 비록 낙관이 없는 임서이지만 자암 서체의 특징인 필획 굵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필획은 그의 필적임을 말해준다. 자암선생은 왕희지체를 익혀 인수체를 완성한 명필이다. 인수체는 왕희지필법을 배웠지만 왕희지와는 다른 필법을 완성한 서체로 그 만의 특징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후인들이 인수체라고 한 것이다. 같은 글씨를 공부하더라도 필자의 성정性情에 따라 각자 다른 특징적인 필획과 결구로 표현된다. 이 필첩은 인수체의 발생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필첩은 당唐 소식蘇軾의 「희우정기」를 초서草書로 적은 것이다. 이는 다른 글씨와 달리 작품화한 것을 목판으로 인출한 것이다. 그리고 「희우정기」는 유일하게 자암선생의 낙관落款이 있다. 다만 이는 후낙後洛으로 해서楷書로 낙관하였다. 「희우정기」는 단순한 필사의 개념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개념으로 서사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글씨와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필획과 결구, 그리고 장법까지도 완전하게 살필 수 있는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는 초서작품이다. 비록 목판본이지만 인수체의 초서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희우정기 | 喜雨亭記

16세기 추정 / 1첩 / 목판본 / 40cm × 28.5cm





지일강산려 | 遲日江山麗

복제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암 김구 선생이 쓴 두보杜甫의 절구絶句 2수 가운데 일부로 초서 글씨 8자가 쓰여 있다. 이 큰 글씨의 초서는 힘이 넘치는 필획과 동감動感이 커 마치 춤을 추는 듯하며, 양쪽 화면의 글씨 배치와 여백의 효과는 균형과 긴장감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

지일강산려 遲日江山麗 나른한 봄날에 강산이 아름답고
춘풍화초향 春風花草香 봄바람은 꽃향기 싣고 불어오네.
니옹비연자 泥融飛燕子 진흙이 녹으니 집지으려는 제비들 날아오고
사난수원앙 砂暖睡鴛鴦 따뜻한 강모래에 원앙 한 쌍 잠들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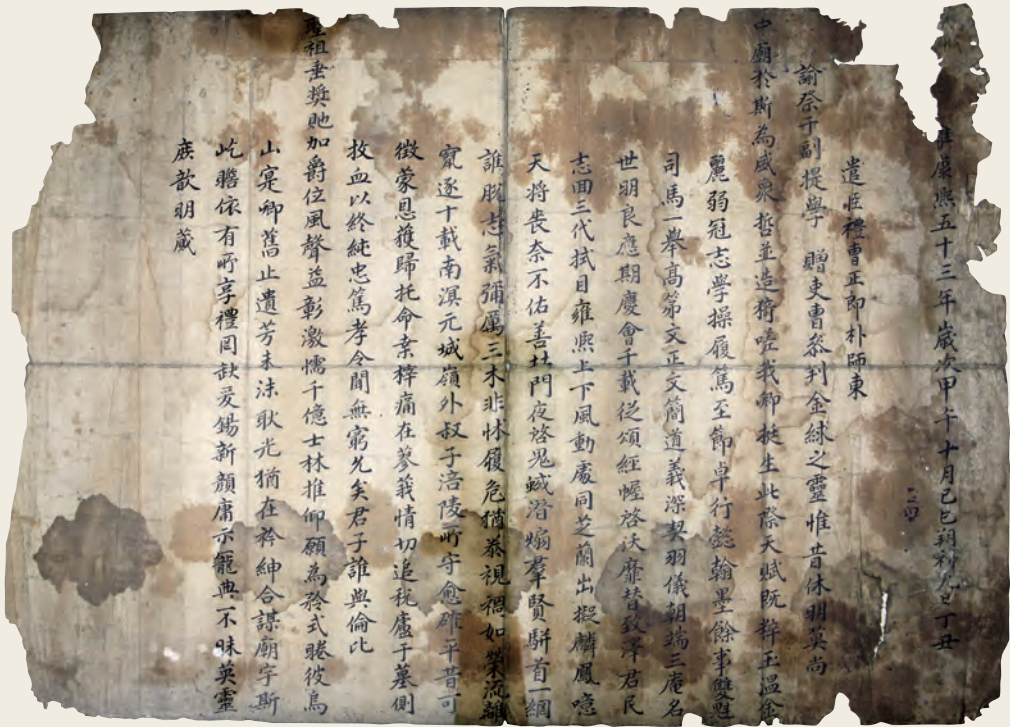
자암 김구 선생이 왕발(王勃, 650~676)의 이별시인 별설화別薛華 5언율시 1수를 쓴 것이다. 1519년(중종 14) 6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예조참판에서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나가는 충재沖齋 권벌權機에게 이별의 시로 써서 준 것이다. 이 시는 초서체로 세로 3행에 걸쳐 쓰고 좌측 하단에 ‘대유서증大柔書贈’이라 적었다. 필체가 호탕하다.

송송다궁로 送送多窮路 꺾이나 힘든 길로 그대를 보내고 나서
황황독문진 遑遑獨問津 허둥지둥 홀로 나무에 가서 물어 보노라.
비량천리도 悲涼千里道 슬픈 천릿길에 애끓는 사람 마음이나
처단백년신 悽斷百年身 기껏 백년인 몸 슬픔으로 애간장은 끊어지는 듯
심사동표박 心事同漂泊 마음은 일과 떠돌기를 함께 하니
생애공고신 生涯共苦辛 평생토록 함께 고생만 하는구나.
무론거여주 無論去與住 가고 머무는 것 따위야 논하지 말게나
구시몽중인 俱是夢中人 모두가 꿈속의 사람이니.



별설화 | 別薛華

복제본(충재유물전시관 소장)



치제문 | 致祭文

1714년(숙종 40)_강희康熙 53년 / 54cm × 7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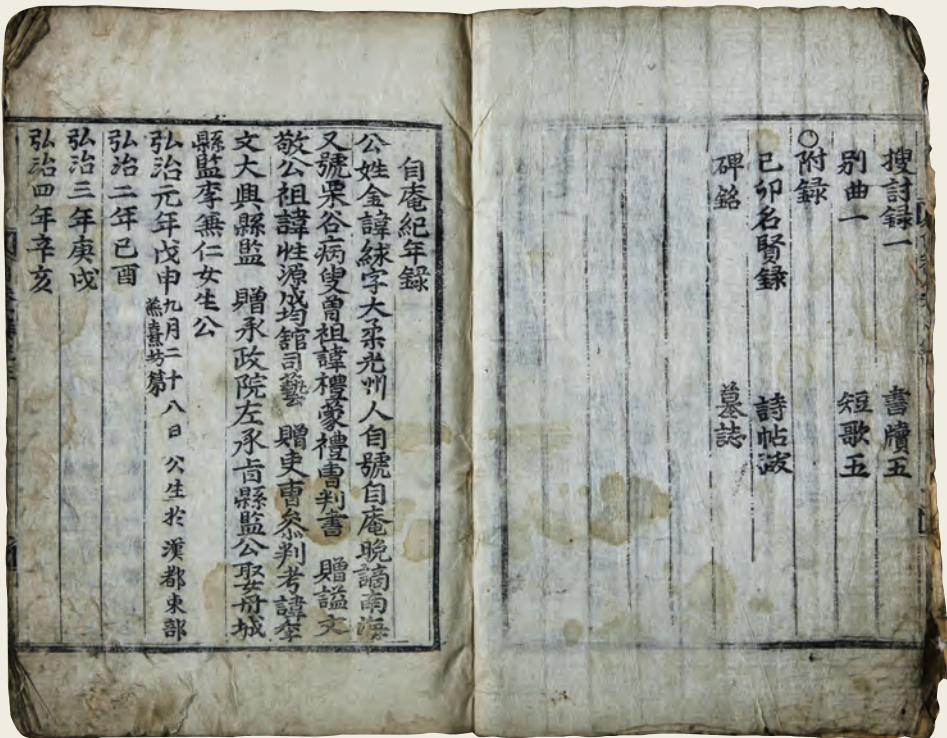
1714년 10월 9일 부제학 증이조참판 김구 선생의 기일(忌日)을 맞이하여 국왕 숙종이 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에게 제문祭文을 보낸 것이다. 치제致祭란 국가에서 왕족王族이나 대신大臣,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갖추어 지내주는 제사를 말한다. 1714년은 자암선생을 배향한 덕암서원이 사액賜額을 받은 해로 이를 기념하여 국왕 숙종이 치제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임금이 자암선생에게 시호를 내린 교지이다. 시호諡號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문의文懿’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문文은 ‘도덕박문道德博問’,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그 도리를 체득하는 행위 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無不知는 뜻이고, 의懿는 ‘온유성신溫柔性善’,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성이 착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1746년 영의정 김재로가 기묘명현 가운데 학문과 명절이 특이한 분들에 대한 증직과 증시를 청하자 국왕이 허락한 것이다.

증시교지 | 贈諡教旨

1747년(영조 23)_건륭乾隆 12년 / 61.5cm × 71.5cm





자암집 | 自菴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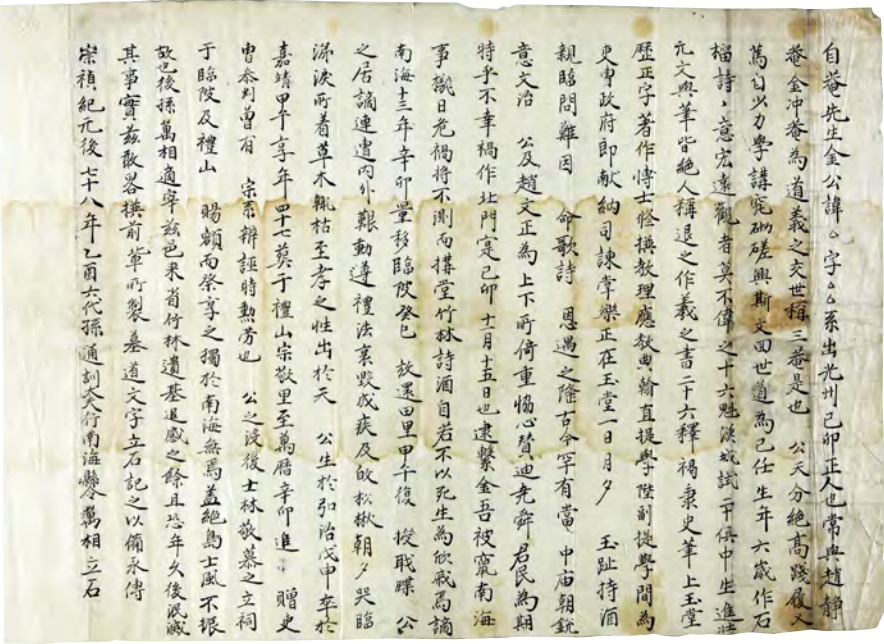
1659년 추정 / 2권 1책 / 목판본 / 30.3cm × 20.9cm

자암 김구 선생의 시문집이다. 자암선생은 원래 필력筆力이 강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나 뒤에 절필絶筆하여 전하는 것이 적었다고 하며, 여기에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다수가 소실되었다. 그 후 외증손外曾孫인 순양부원군順陽府院君 안몽윤安夢尹이 흠여져있던 문헌을 모아 편집하여 보관하던 것을 몽양夢尹의 아들인 현령 응창應昌이 연보年譜와 묘지墓誌 등을 찬술撰述·합편合編하여 1659년(효종 10)에 의성義城에서 간행하였다. 자암집 권1에는 시詩, 권2에는 부賦, 표表, 송頌, 책策, 의疑, 옥중상소獄中上疏, 망운산기우문望雲山祈雨文, 묘갈음기墓碣陰記 및 왜구수토록倭寇搜討錄, 서書, 별곡別曲, 단가短歌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으로 안응창의 발문跋文이 있다.

자암 김구선생의 6대손인 김만상金萬相이 남해현령으로 부임한 이듬해인 1705년(숙종 31)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자암선생을 추모하기 하기 위해 당시 유배지의 옛터에 세운 추모비의 초본 문서 2장이다. 이 중 1장은 추모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만상은 1704년 9월 4일 남해현령에 제수되었고, 1711년 사헌부 감찰, 1712년 박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김만상에 대해 “정사를 행함에 강직하고 명석하였으며, 백성들을 지성으로 잘 돌보고, 관청의 곡식을 고르게 나누어 주어 백성들에게 명성이 자자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문 | 自菴金先生謫廬遺墟追慕碑文

1705년(숙종 31)_송정기원후 78년 / 37.5cm × 88.5cm





자암적려유허비문 | 自菴謫廬遺墟碑文

18세기 이후 / 탁본첩 / 41cm × 24.8cm

1706년(숙종 32년) 전라도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자암 김구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그 옛터에 세운 추모비를 탁본하여 첩으로 만든 것이다. 김만화金萬和가 비문을 짓고, 자암선생의 6대손인 남해현령 김만상金萬相이 쓰고, 김만주金萬冑가 전액篆額하였다.

탁본첩의 끝부분에는 자암선생이 충재 권벌선생에게 써준 이별시인 5언율시 ‘별설화別薛華’의 목판본 글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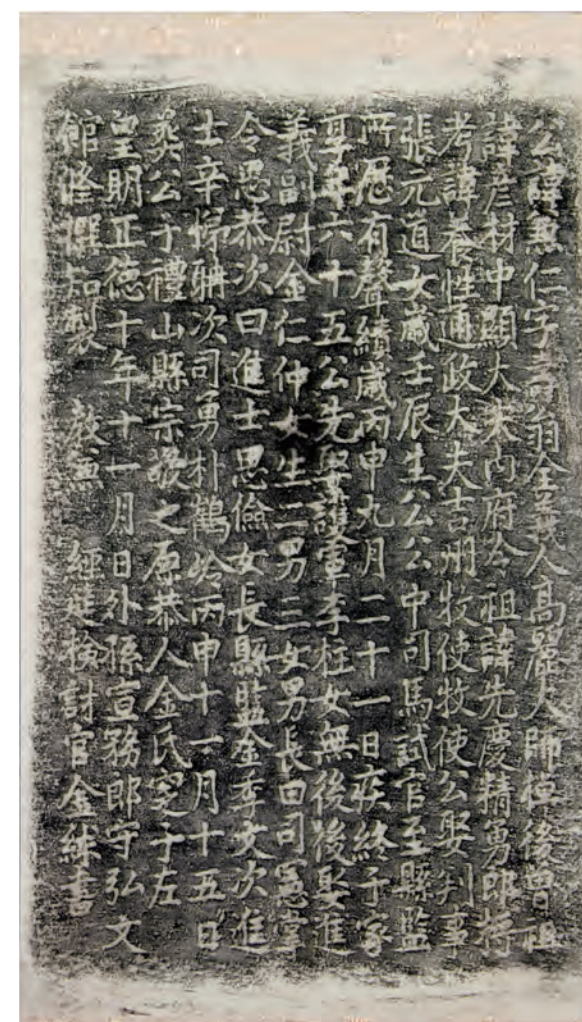
단성현감丹城縣監 이겸인(李兼仁, 1412~1476)의 묘비문墓碑文 탁본이다.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자암自庵 김구金絀 선생이 해서楷書로 212글자를 써서 1515년 예산현禮山縣 종경宗敬[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세운 것이다. 김구는 이겸인의 외손자外孫子로서 이겸인의 사위인 김계문金季文의 아들이다.

비문은 글자의 짜임을 위아래로 길쭉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납작한 짜임의 송설체와는 다른 외양을 이루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고, 군데군데 왕희지 행서풍을 가미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겸인 묘비 | 李兼仁 墓碑

묘비 전면

묘비 후면





묘비 전면

김계문 묘비 | 金季文 墓碑



묘비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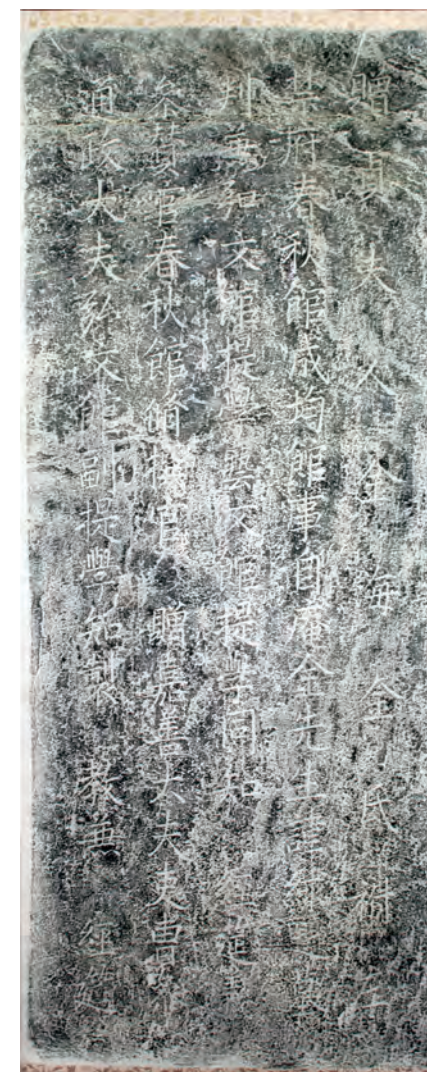
자암 김구의 부친인 대흥공 김계문金季文의 묘비이다. 김계문의 자는 자미子美, 본은 광산으로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 김성원金性源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에 식년시 생원 3등 7위에 입격하였고, 대흥현감으로 치적을 남겼고, 중종반정 공신으로 승지를 증직 받았다. 묘소는 예산군 신암면 중경리에 있다. 김계문이 대흥현감으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후손들은 이 고장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1640년에 충청남도 예산에 건립된 김구 선생의 묘비 탁본이다. 자암自菴 김구(金絿, 1488~1534)선생은 중종 때의 문신이다. 1511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직제학으로 있다가 기묘사화(1519년)에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과 연루되어 귀양 갔으며 15년 만에 석방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병사하였다.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여 조광조, 김식金湜과 비길 만 했다고 하며 음률에도 능통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안평대군, 양사언, 한호(석봉)등과 함께 조선 전기 4대 서예가로 꼽힌다. 선조 때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성균관 대사성 김세림이 비문을 지었다.

김구 묘비 | 金絿 墓碑

묘비 전면

묘비 후면



덕잠서원 관련 유물

덕잠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관계된 문서를 등서謄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1703년(숙종 42) 덕잠서원의 창건에 대해 예산의 유생들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정문문文과 감사의 제사題辭, 청건소請建疏, 복계復啓, 1703년 12월의 서원 상량문上樑文, 1705년 1월의 봉안제문奉安祭文, 춘추제문春秋祭文, 동년 8월의 청액소請額疏 등이 수록되어 있다.



덕잠서원 사액 현판 | 德岑書院 賜額 懸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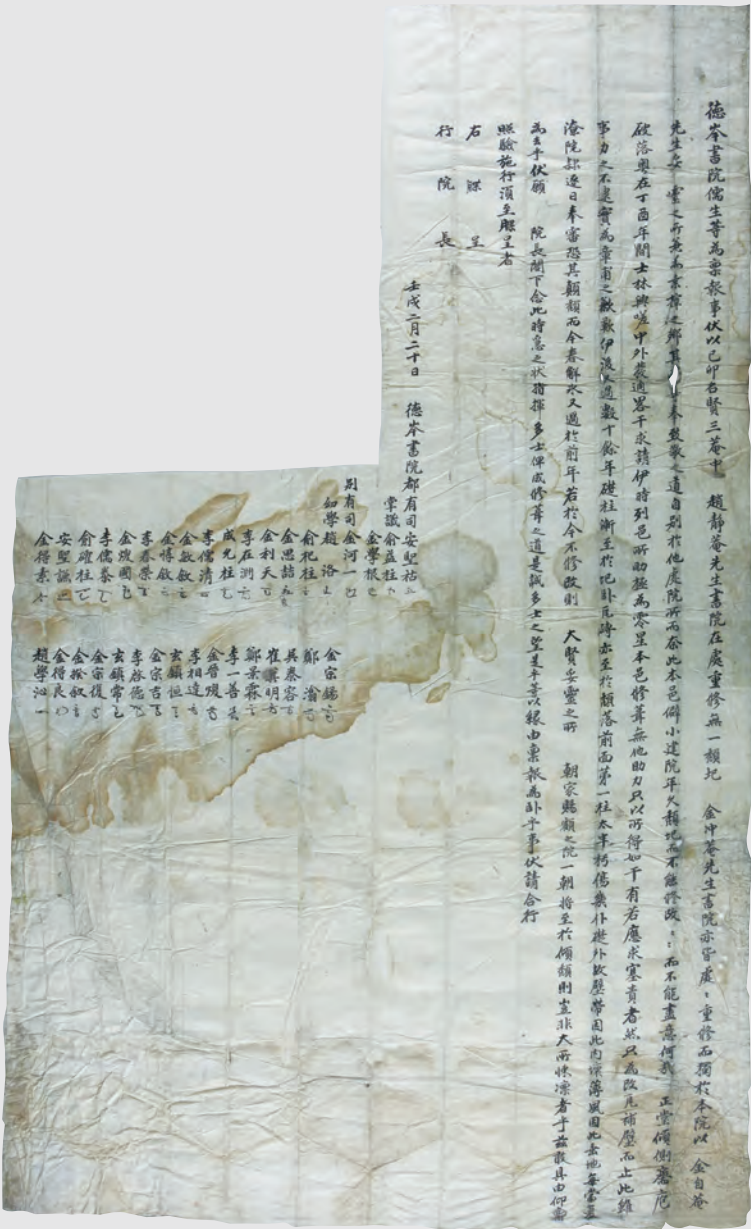
1714년(숙종 40) / 판각板刻 / 32.5cm × 113.4cm

덕잠서원의 현판으로 1714년(숙종 40) 사액 받을 당시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평으로 거는 횡액橫額이며, 글자를 양각으로 판각한 뒤 바탕은 검은색, 글자에는 흰색을 칠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판의 테는 남아있지 않으나 테를 고정시켰던 나무못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충식蟲食 현상이 보이며 진행 중이다. 현판의 앞면에는 황토로 보이는 흙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충청도예산현자암김선생건원사적 | 忠淸道禮山縣自菴金先生建院事蹟

18세기 추정 / 1책 / 필사本 / 24cm × 23cm





첩정 |牒呈

1802년(순조 2) / 덕잠서원 유생 / 덕잠서원 원장 / 102cm ×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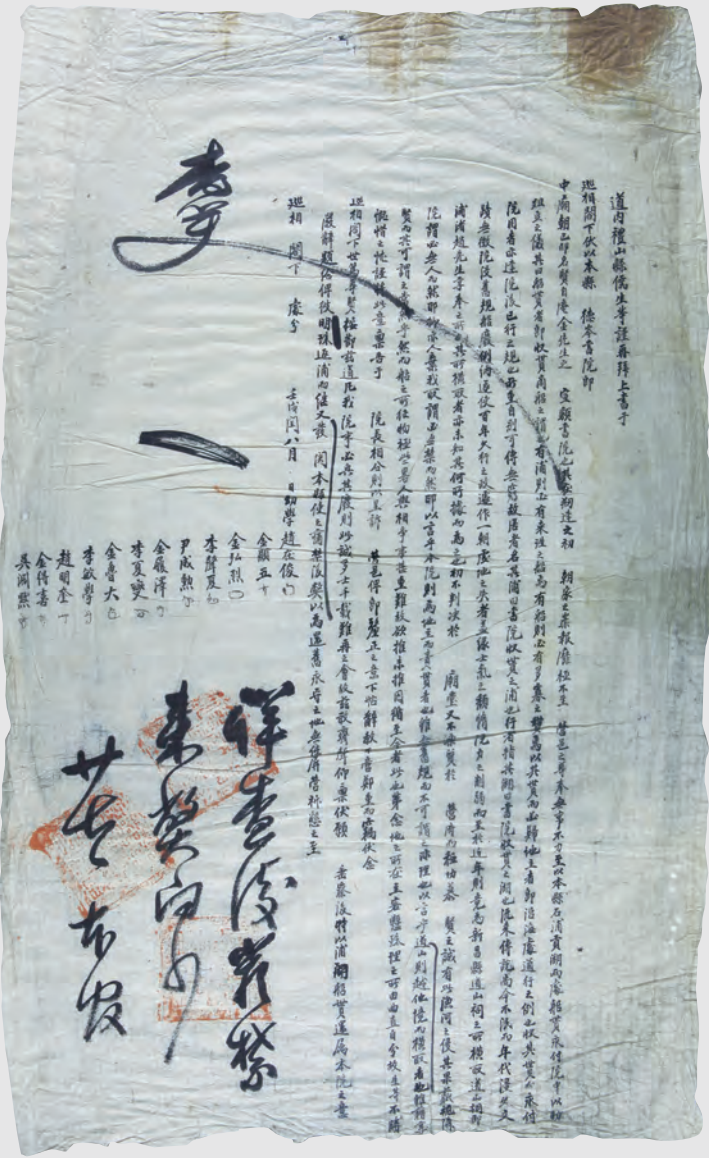
덕잠서원 도유사都宐司, 장의掌議, 별유사別宐司 등 35명의 덕잠서원 유생이 당시 서원 원장이었던 풍고楓臯 김조순(金祖淳, 1765~1832)에게 올린 문서이다. 정암 조광조와, 충암 김정을 모시는 서원은 모두 중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직 자암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은 중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건물이 모두 쇠락하였으니 원장께서 서원의 중수에 힘써달라는 내용이다. 이후 덕잠서원은 1803년에 사당부터 중수에 들어가 1813년 중수를 마치게 되었다.

덕잠서원 유생 조재준趙在俊 등 12명이 1862년 8월 15일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예산현의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는 본래 덕잠서원에서 거둬들여 사용하던 것인데 근래 아산의 도산사道山祠에서 불법으로 가로채고 있으니 세금의 수취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첩정 |牒呈

1862년(철종 13) / 덕잠서원 유생 / 예산현감 / 78cm × 58cm





상서 | 上書

1862년(철종 13) / 덕잠서원 유생 / 충청도관찰사 / 90cm × 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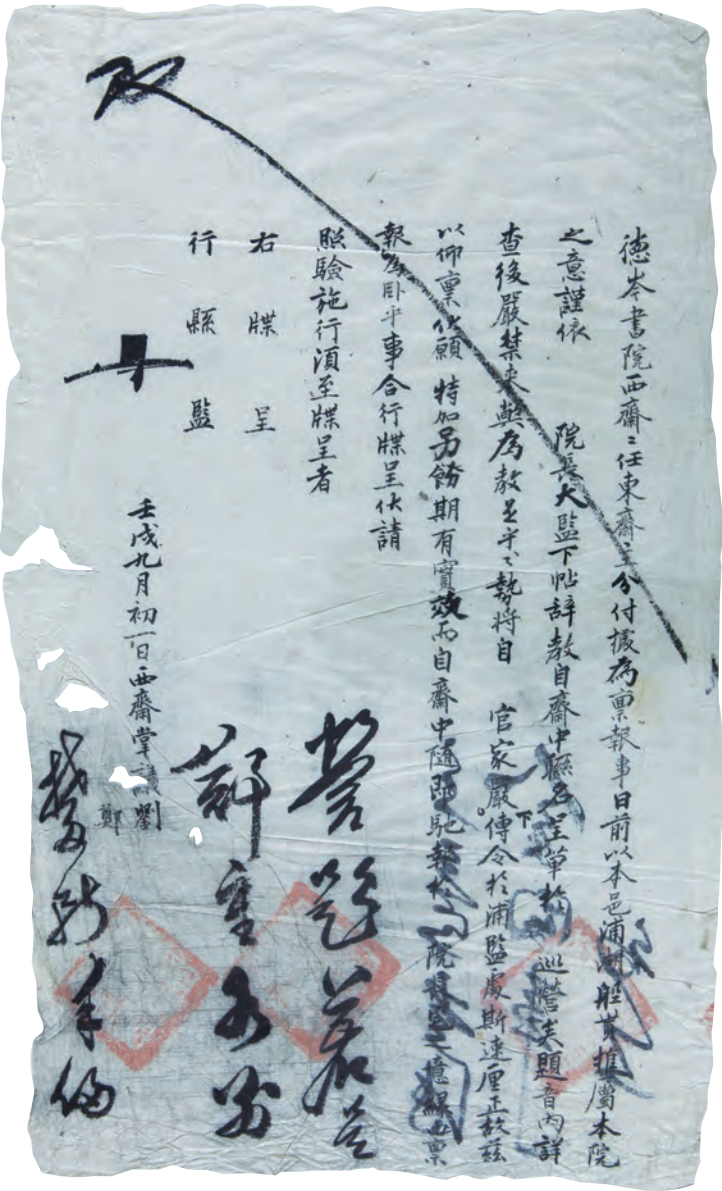
덕잠서원 유생 조재준趙在俊 등 12명이 1862년 8월 하순에 충청도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예산현의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는 본래 조정에서 덕잠서원에서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에 사용하라고 내려준 것인데 서원이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몰락하면서 구구가 사라지고 징험할 문서가 없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근래 예산현이 아닌 아산의 도산사道山祠에서 월경하여 선세를 불법으로 가로채고 있으니 세금의 수취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달 먼저 예산현감에게 첩정문서를 올린 뒤에도 도산사에서 수취권을 돌려주지 않자 다시 충청도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덕잠서원 서재西齋 장의掌議인 유劉, 정鄭 2명이 1862년 9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관찰사, 원장대감의 처분이 있었으니 포감浦監에게 영을 전하여 이를 속히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 포감浦監：포구의 감독과 감시를 수행하는 서리

첩정 | 牒呈

1862년(철종 12)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78cm × 58cm





첩정 | 牒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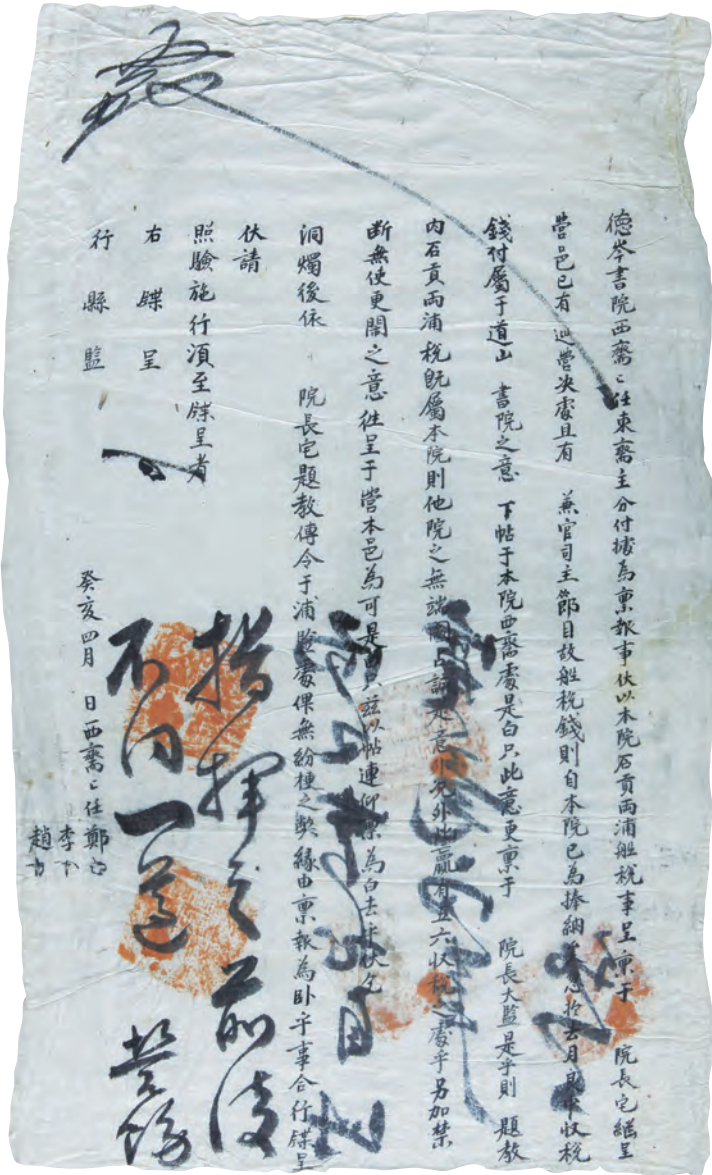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유생 / 덕잠서원 원장 / 89cm × 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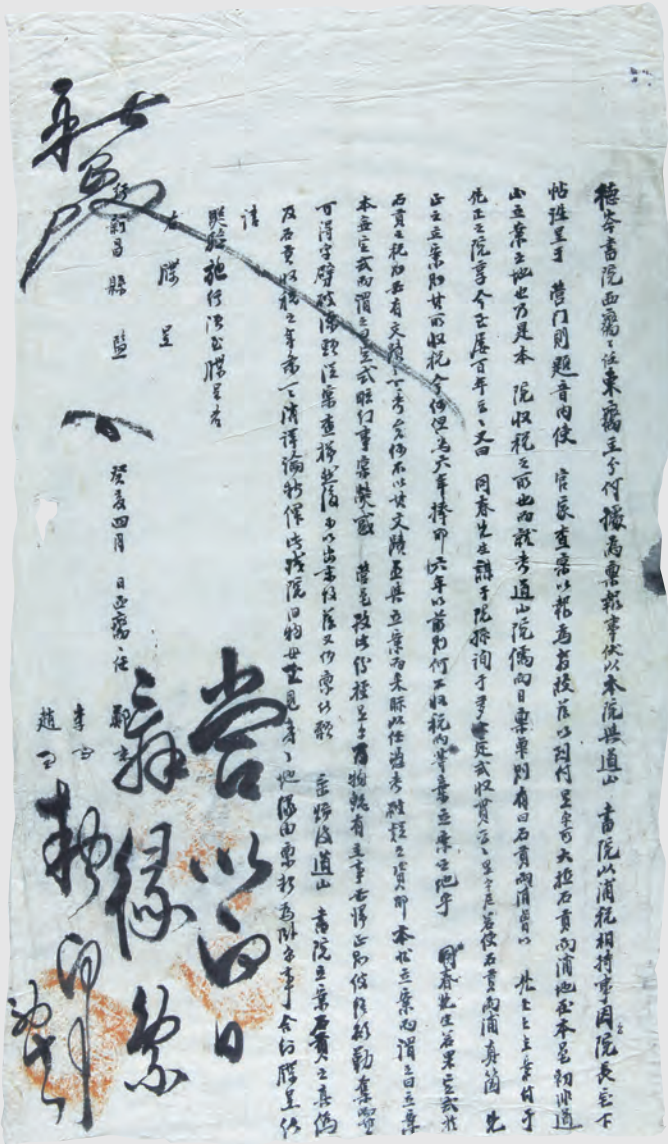
덕잠서원 유생 조재준趙在俊 등 12명이 1863년 3월 당시 덕잠서원의 원장인 김좌근(金佐根, 1797~1869) 대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지난해에 현감과 관찰사에게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貫를 신창의 도산사로부터 돌려받기를 청하는 문서를 올려 이에 허락을 받았음에도 도산사道山祠에서 백 년 동안 수취해오던 것을 근거 없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 원장에게 힘을 써주길 청원하는 문서이다.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4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예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원장대감의 제음[제김]이 있었음에도 5~6곳에서 다시 수세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폐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3cm × 38cm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4cm × 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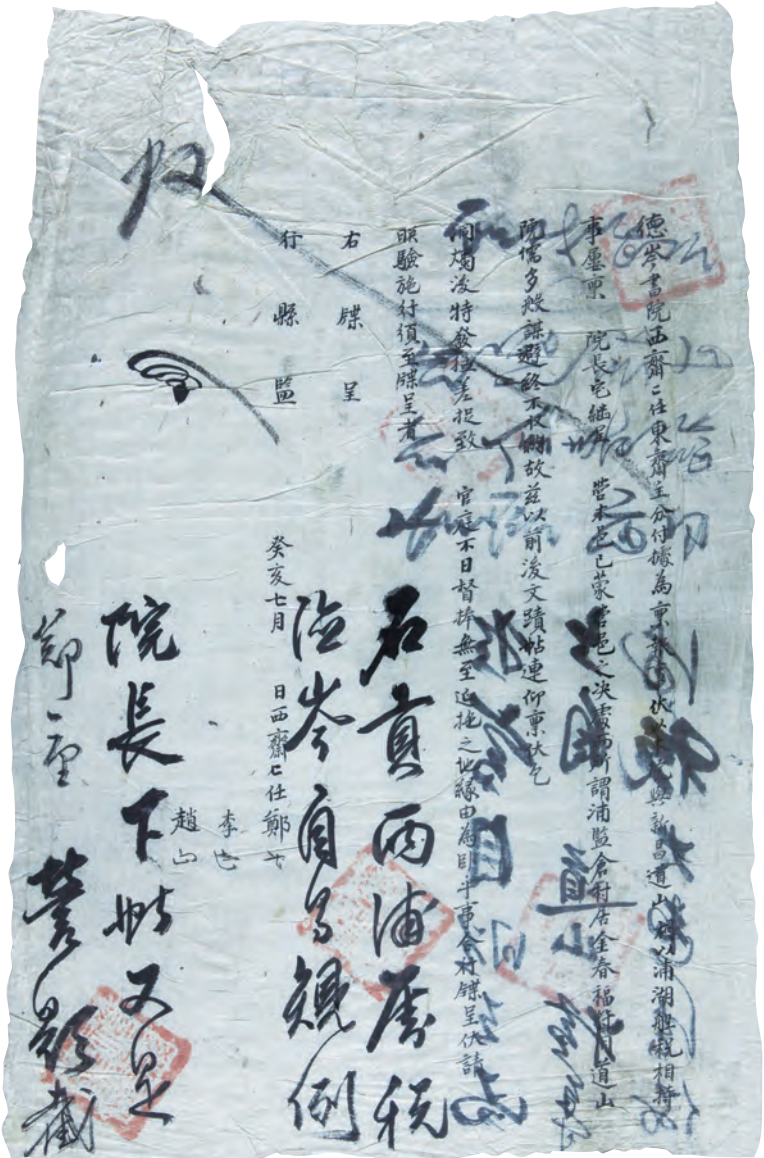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4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예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원장대감의 제음[데김]이 있음에도 도산서원은 입안立案에 기재된 석공石貢 포호浦湖의 수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이 입안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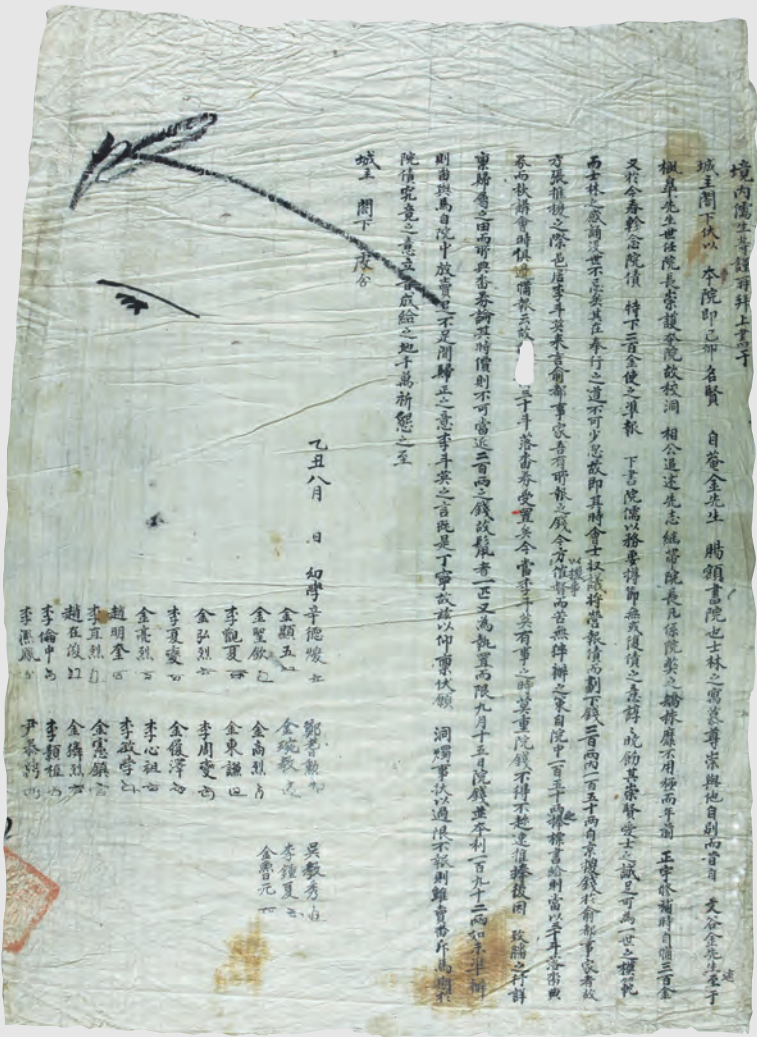
* 입안立案：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로 요즘의 등기登記와 유사하다.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7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현감, 관찰사의 판결이 있는 후에도 포감浦監인 창촌倉村에 사는 김춘복金春福이 도산사의 유생들과 한통속으로 모의하여 수납하지 않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3cm × 38cm





상서 | 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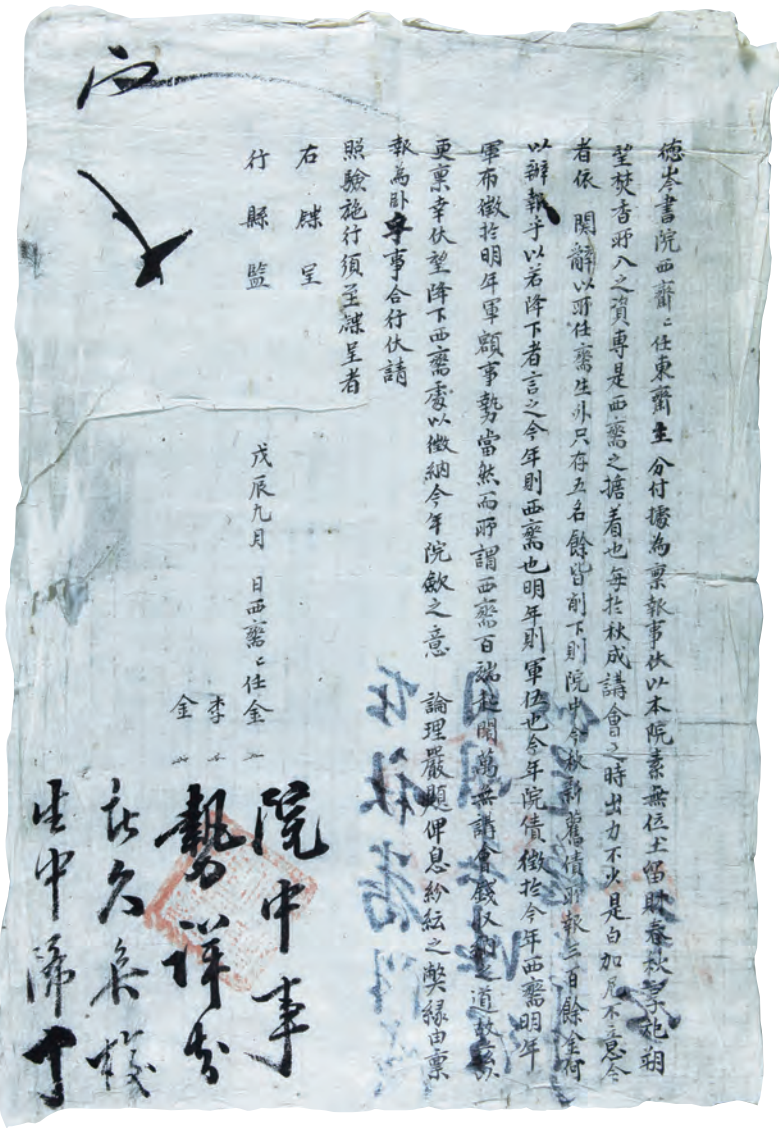
1865년(고종 2) / 덕잠서원 유생 / 예산현감 / 78cm × 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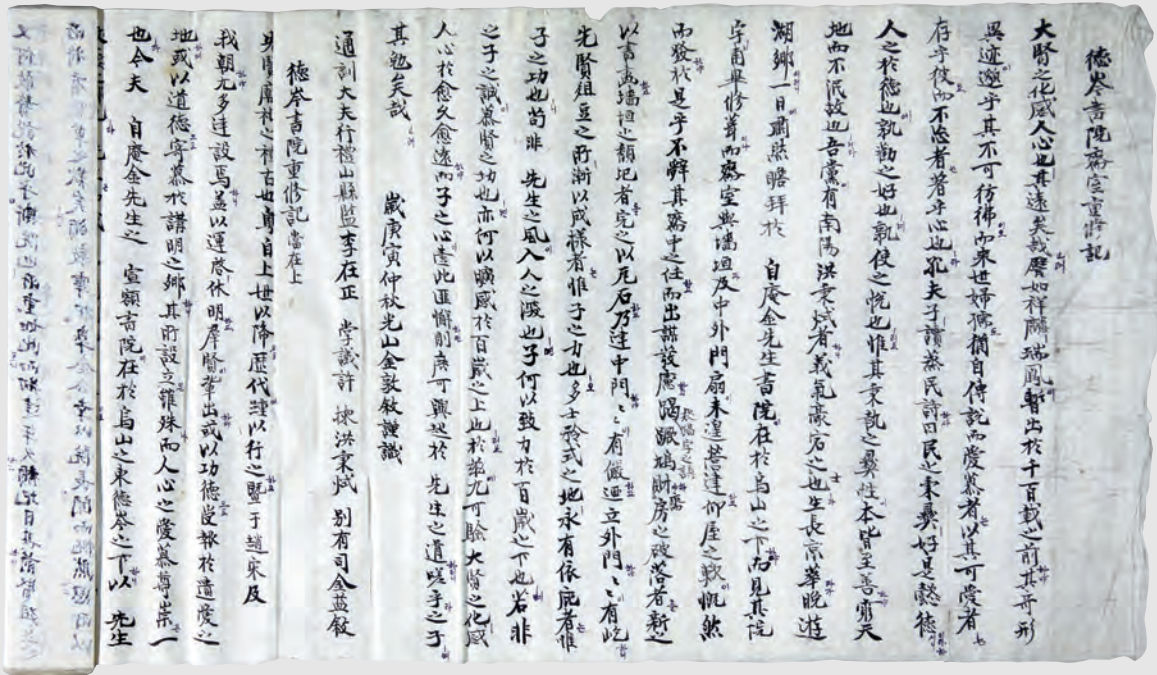
덕잠서원 유생 신덕환辛德煥 등 27인이 1865년 8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서원의 원장인 김좌근 대감이 서원의 부채를 갚으라고 준 200금을 읍에 거주하는 이두영李斗英에게 담보를 받고 일시 빌려주었으나 담보의 시기時價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니 이두영 소유의 말馬까지 함께 서원에서 팔아 채무를 갚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김금, 이李, 김金 3명이 1868년 9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덕잠서원은 토지와 재산이 거의 없어 춘추제의와 삭망분향 제사도 서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00여 금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이다.

첩정 | 牒呈

1868년(고종 5) / 덕잠서원 재임 / 예산현감 / 54cm × 38cm





덕잠서원중수기 | 德岑書院重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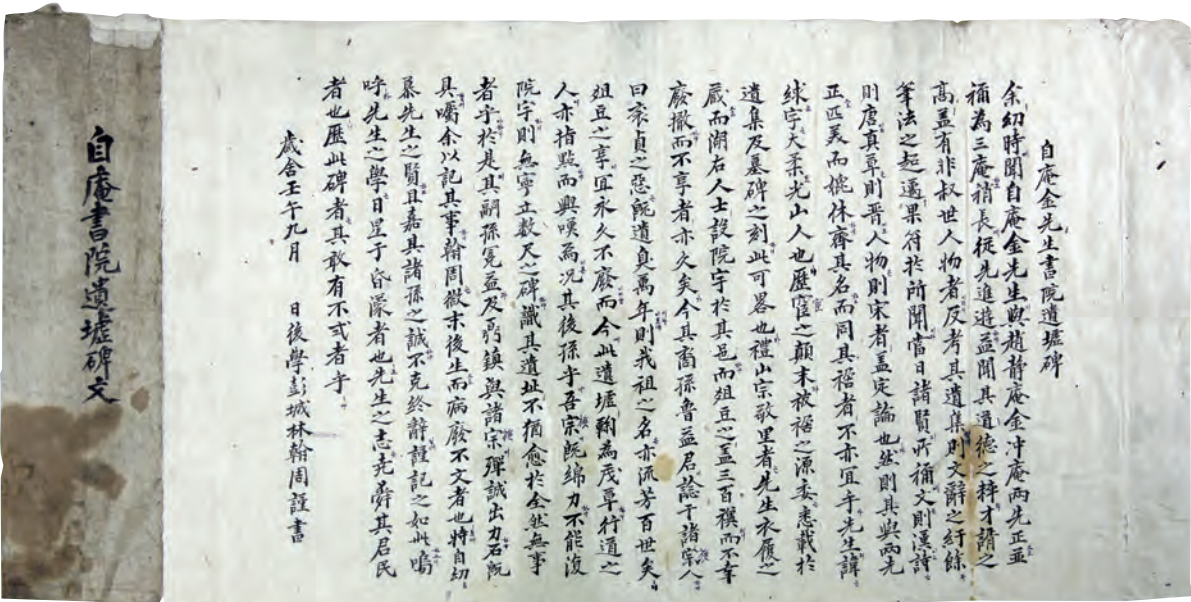
19세기 추정 / 필사본 / 27cm × 145.5cm

3편의 덕잠서원 중수기를 연이어 필사해 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덕잠서원재실중수기德岑書院齋室重修記」로 1830년 김돈서金敦敍가 쓰고 예산현감 이재정李在正, 장의 허간許揆·홍병식洪秉弼, 별유사 김익서金益敍가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덕잠서원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로 1826년 역시 김돈서가 쓰고 예산현감 이명하李溟夏, 장의 조문원趙文源·김익서金益敍 별유사 김증복金宗復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의 「덕잠서원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는 1856년 이장찬李章贊이 쓰고 예산현감 홍훈모洪薰謀, 장의 성맹환成孟煥·김현오金顯五, 본손 김달수가 참여하였다.

덕잠서원 유희비의 비문 원본이다. 자암 김구선생을 모신 덕잠서원은 1705년(숙종 31)에 세워졌다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된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42년 자암선생의 후손들은 이곳에 자암선생을 모셨던 서원이 있었던 곳이라는 유희비를 세우기 위해 성헌 임한주(林翰周, 1871~1954)에게 글을 부탁한다. 임한주는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충청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유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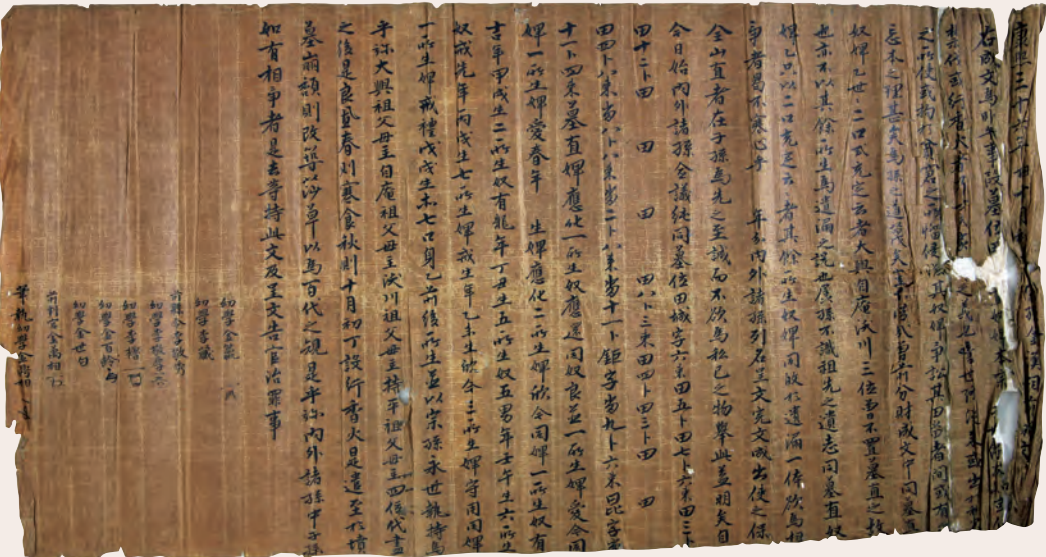
자암김선생서원유희비 | 自菴金先生書院遺墟碑

1942년 / 임한주 / 필사본 / 33.5cm × 59cm



후손 및 기타 소장 유물

1620년 7월 2일 김숙(金櫨, 1570~?)을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下] 행덕산현감行德山縣監에 임명하는 사령장이다. 김숙은 자암 김구의 3대손으로 후에 정2품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자급資級이 정3품이면서 종6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덕산현감 앞에 ‘행’ 자가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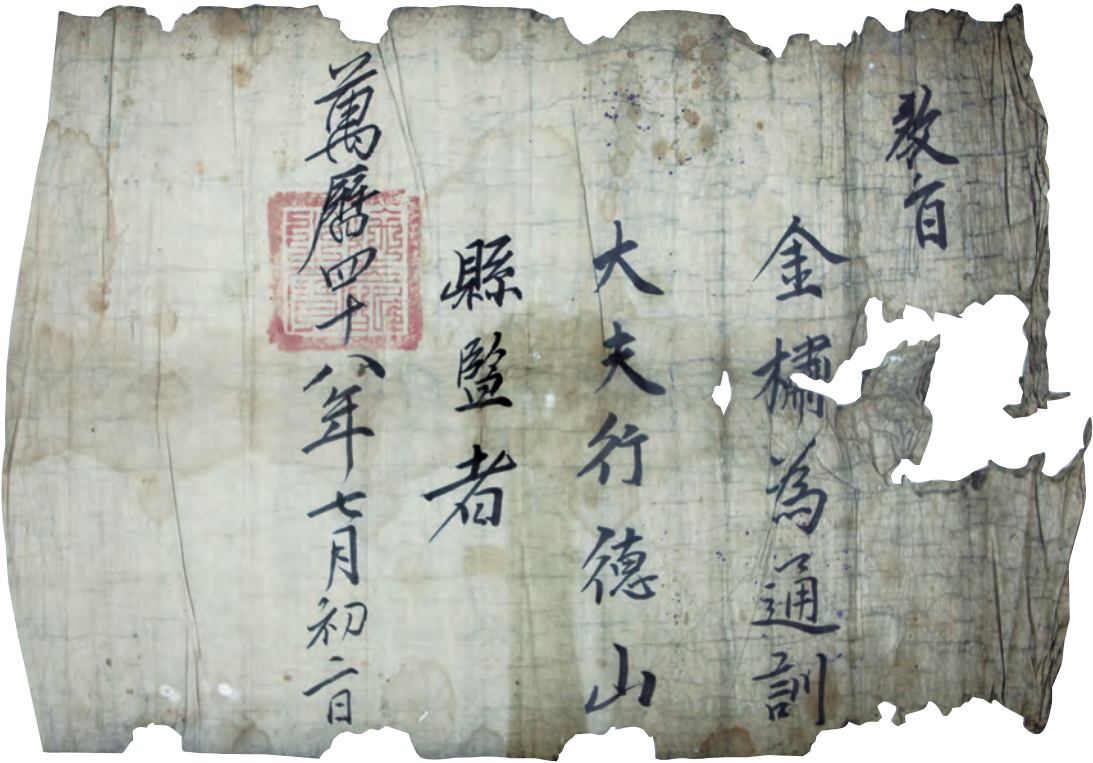


묘위전 명문 | 墓位田 明文
1697년(숙종 23) / 필사본 / 46cm × 90cm

자암 김구선생의 6대 종손인 김한상에게 내린 묘위전墓位田 상속에 관련한 명문明文이다. 문서에 기록된 전답과 노비는 대흥공大興公 조부모, 자암공自菴公 조부모, 옥천공沃川公 조부모, 지평공持平公 조부모 4대의 한식寒食 제사와 가을 10월에 실행되는 제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자손들이 다룰 때에는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말미에 증인과 집필자의 성명과 수결[서명]이 있다.

김숙 고신교지 | 金櫨 告身教旨

1620년(광해 12)_만력萬曆 48년 / 48cm × 73cm





김태중 고신교첩 | 金泰重 告身敎牒

1694년(숙종 20)_강희康熙 33년 / 49cm × 56cm

1694년 3월 25일 이조吏曹에서 봉직랑奉直郎[종5품 上] 김태중(金泰重, 1675~1705)을 통덕랑通德郎[정5품 上]에 임명하면서 내린 사령장이다.

삼촌 숙부인 훈련원 판관 김만상金萬相의 별대가別代加로 자급이 오른 것이다. 김태중은 자암 김구선생의 7대손이다.

* 교첩敎牒：조선시대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

* 별대가別代加：특별승진 혜택을 본인이 아닌 아들, 동생, 조카, 사위에게 대신 주는 것

북애北崖 이증(李增, 1525~1600)의 시집詩集으로 1659년(孝宗 10)에 판각했다. 이증의 시문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거의 타 버렸는데, 그의 아들 이경심李慶深이 사람들 사이에 전송되던 시 8수를 모아 1614년에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 1542~1621)에게 정서淨書를 부탁하였다. 그 후 1659년에 간행하였다.

책의 명칭이 「남창필적」인 것은 김현성의 호인 남창을 따서 그의 필적이라는 것이다. 김현성은 시·서·화에 두루 능하였는데, 그림보다는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시에 능하였다고 한다. 글씨는 조선초에 유행하였던 우아하고 균정된 모습을 지닌 송설체松雪體를 따랐다.

남창필적_북애시고 | 南窓筆跡_北崖詩藁

1659년(효종 10) / 1책 / 목판본 / 37cm × 25cm



1855년(철종 6) 8월 2일 팔도유생八道儒生, 유학幼學 오혁吳赫 등 3,416인이 올린 상소문을 베껴 쓴 것이다.
윤선거 · 윤증 · 조석우 · 이현일을 탄핵하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상소문 | 上疏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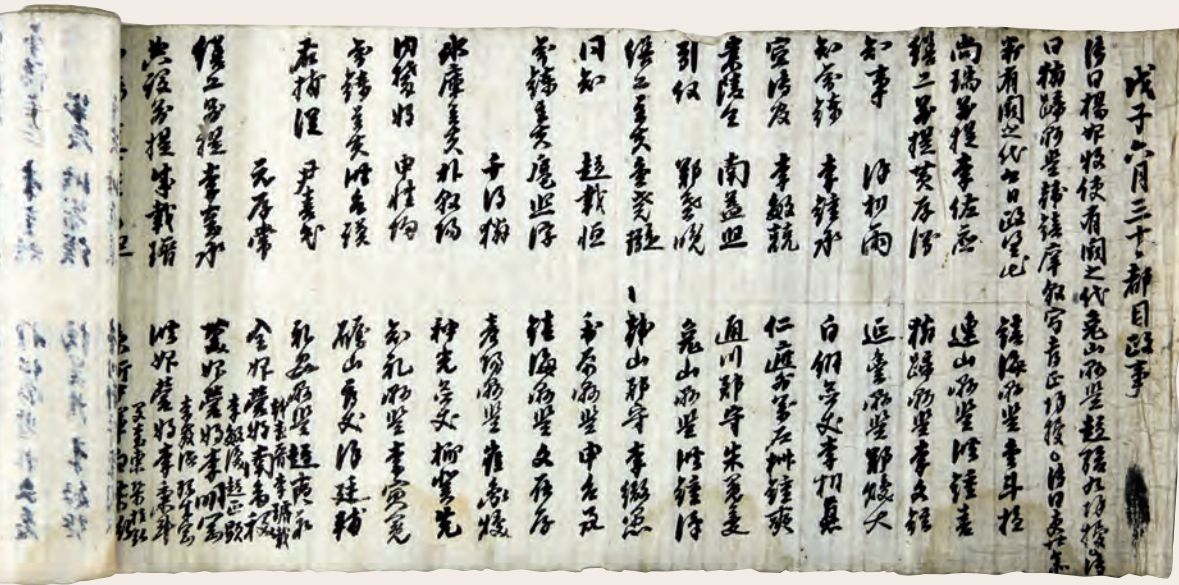
19세기 중반 / 팔도유생 오혁 등 / 필사본 / 23cm × 620cm



분향소재 | 焚香小齋

연대미상 / 판본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노년 완숙한 경지의 글씨로 “분향소재焚香小齋”라 쓰여 있다. “작은 서재에서 향을 피워 독서를 한다”라는 뜻이다.
낙관에서의 ‘과로果老’는 추사 김정희가 노년에 썼던 별호別號이다. 과천에 사는 노인이라는 의미인데 긴 유배에서 풀려난 김정희는 1852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5년간 과천의 과지초당瓜芝草堂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도목정사 | 都目政事

1880년(고종 17) / 필사본 / 20.3cm × 379cm

1880년 6월 30일 행해진 도목정사都目政事의 결과를 등사한 문서이다. 도목정사는 조선시대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이다.

조선 4대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絿)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01 정 치

조선 중종대의 정치와 自菴 金絿

김 범 (국사편찬위원회)

13 문 학

자암 김구의 시와 노래

최 재 남(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31 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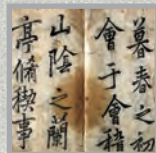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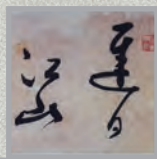
자암 김구의 서체

손 환 일(서화문화연구소)

59 지정토론

박 성 목(예산역사연구소), 강 희 진(예산향토사연구회)

좌 장 - 오 석 민(충청남도역사박물관장)



조선 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絀)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비매품

※ 본 책자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